

◆ Approach to the New Function of Reference Service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대학교서관 참고활동 영역확장론

한 상 완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서론

- I. 한국 대학교서관 참고활동의 개황
- II. 참고활동 기능의 재평가와 새 개념에의 접근
- III. 인적영역의 확장
- IV. 문헌영역의 확장
- V. 시설 및 조직의 확장

결론

서론

한국의 대학교서관은 진통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품귀현상을 보였던 해방이후의 대학교서관 상황은 우리가 한국사적인 전지에서 간과하더라도, 1957년 서구적인 도서관학 개념 도입 이후의¹⁾ 대학교서관의 면모는 수와 양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그 근원적 기능의 발휘를 전제한 평가와 분석에서는 바람직한 도정에서 있지 못함이 주지의 일이다.²⁾ 현상의 분석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대학교서관의 본질적 기능에 못미치고 있거나, 빛나가고 있는 부문이 참고업무(reference work)를 통한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일 것이다.³⁾

도서관의 미래는 1) 사서가 도서관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암시를 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2) 개개의 도서관과 모든 도서관이 한 단위로 유통(communication)되고 조직되고, 3)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⁴⁾에서부터 목록(cataloging)과 수서(acquisitions)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고 증진되는 실제적인 방법론의 연구, 4) 도서관의 기술적인 진보에 관한 연구와 이의 응용이라는 4가지 요소에 연

결된다면⁵⁾ 대학교서관의 방향설정이 어떠한가 할 것 인가는 자명해진다. 즉 유능한 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와 조직의 확대 및 효율화, 도서관 계업무의 과학화 등은 결국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의 배경적 요소로서 요청되는 것이며,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의 두뇌의 역할을 감당할 대학교서관의 이상적 실상(ideal state)의 연원도 여기서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교서관 사서와 대학사회의 구성원의 공동관심사인 기본기능을 발현하는 대학교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의 범주(category)를 넓히려는 데 초점을 두려한다. 또한 한국의 대학교서관 참고업무(reference work)의 개황을 살피고, 참고사서(reference librarian)의 전문화(specialization), 참고자료, 참고열람실의 시설, 조직면에서의 재검토와 새로운 개념의 제시를 통한 한국 대학교서관 참고활동의 변혁을 이루는 근거를 논하려 한다.

대학교서관은 모든 업무가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참고업무와 참고활동의 형태를 전제한 체계를 수립하게 될 때에야 대학교서관다위치게 된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더욱 절실할 것이라는 점이 가설(hypothesis)이며 동시에 증명된 결론(conclusion)임을 확인하고 발전적 진통을 거듭하는 현상의 방향설정에 참신한 비전(vision)을 제시하려는 것이 또하나의 의도이다.

I. 한국 대학교서관 참고활동의 개황

한국의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관해서는 두 견해가 있다. 아직까지의 보편적 이론은 1956년 6월 연세대학교 도서관이 참고

1)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와 창립연도.

2) 한국도서관협회, 전국도서관실태조사, 상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p.133-170 참조

3) Ibid.

4) reference service는 참고봉사, 참고업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나, 이들 용어는 딱히 전문사서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미흡하여 본론에서는 참고활동이라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런 용어의 사용에는 이제철교수의 제10회 전국도서관 대회 주제발표 논문이었던 “李朝文獻職의 職能과 그 使命”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William A. Katz,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II (New York: Mcgraw-Hill, 1969), p. 11.

도서실을 개설하여⁶⁾ 참고업무가 공공, 대학, 학교, 특수도서관을 망라한 최초의 시작이라는 것이고,⁷⁾ 다른 것은, 참고활동은 용어의 도입에서는 그럴지 모르나, 사실은 한국의 역사에 이미 이 기능을 발휘한 도서관과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참고사서가 있었다는 학설이다.⁸⁾ 참고활동의 시작에 관한 타당성있는 논증이 어떤것이냐의 문제는 예서 논할게 아니다.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한국 대학도서관 참고활동은 1956년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부터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 후 16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49개 대학 및 대학교 도서관에는 참고열람실을 갖추고 있는 비율이 100% 단과대학이 71%이다. 이 통계로 미루어 상당한 양적 증가를 알 수 있으나⁹⁾ 그 내용은 몇몇의 대학도서관의 참고활동을 제외하고는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부진원인은 1) 참고업무 혹은 참고봉사라고 이해된 reference work, reference service의 개념파악의 불확실성, 즉 이용자의 범위문제, 참고활동단체의 불명료에서 비롯된 소극적 태도, 2) 참고사서의 자질의 결여와 참고 활동정신(reference librarianship)의 결핍, 3) 대학도서관 경영자의 인식부족과 4) 참고업무(reference work)에 대한 일선 사서나 학계의 연구부족을 들 수 있다.¹⁰⁾ 여기에 부연할 수 있는 요인은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구조의 허점을 들 수 있다.¹¹⁾ 이를 총괄하면 참고활동을 중심하여 대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개념의 빈곤에 따른 예산, 인사, 조직 등의 정책부재와, 사서교육의 비합리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적이라 일컫는 몇몇 대학도서관의 예를 든다 하여도 참고활동의 부진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1970년 참고열람실의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실을 병합하여, 1972년 현재 159석의 열람석과 3,853종의 국내의 간행물, 3,003종 8,100여권의 참고도서를 비치하고 있고 연간 참고질문 수가 3,273건에 이르고 있으나¹²⁾ 만족할 만한 참고사서의 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참고사서로서의 자질과 훌륭한 librarianship을 겸비한 이들에 대해서도 적합한 신분적 및 경제적 대우를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참고열람실의 조직에 있어 전문직 사서와 일반직 직원의 업무관계의 불명료성, 전문업무간의 연결의 모호성, 참고업무를 위한 예산의 취약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강대학교 도서관의 참고활동도 진취적인 조직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참고사서의 자질과 신분문제, 업무량에 따른 사서의 배치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도서관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¹³⁾

참고활동을 인식하고 출발할 당시에 비하여는 커다란 양적, 형식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진면목은 전술한 대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인 관리적기능(the supervision); 정보적 기능(the information function); 상담적 기능(the guidance function); 교육적 기능(the instruction function); 서지적 기능(the bibliographic function); 평가적 기능(the appraisal function)의 어느 한 항목에도 상당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 대학도서관의 바람직한 패턴(pattern)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념구조 개선과 이에 따르는 도서관 조직과 경영에 구심점을 참고업무(reference work)에 두고,¹⁴⁾ 생동하는 높은 수준의 미디어 센터(media center) 내지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로 전환시키는 일대 변혁을 필요로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한국적 대학 도서관의 현상에 대한 전이해(pre-understanding)를 중심하여 조금 더 이론적인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참고활동 기능의 재평가와 새 개념에의 접근

참고 활동에는 직접참고활동(direct reference service)과 간접참고활동(indirect reference service)이 있는 바,¹⁵⁾ 참고활동의 핵심이 문제(question)에 있고 이 질문에 적합한 응답을 어느정도 해 주느냐가 참고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의 척도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직접, 간접 참고활동의 기능은 포괄해 본다면 다음의 6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는¹⁶⁾것은 정설이다.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의 기본 기

6) 당시는 연희대학교 도서관

7) 李漢龍, “韓國에 있어서의 參考奉仕에 대한 考察,” 圖書館學會誌, 第三號 (1968, 11) p.15.

8) 李載喆, “李朝文獻職의 職能과 二 使命,” 제10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요지 (1971.9) pp.1-4.

9) 한국도서관협회, *Loc. cit.* 초급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제의.

10) 李漢龍, *Op. cit.* pp.16-23.

11) 현행의 대학교육제도에서 교육된 주제배경을 갖지 않은 도서관학과 출신사서가 진정한 의미의 참고활동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인 것이다,

12) 연세춘추, 1972년3월 27일자(제627호) 1면.

13)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현황분석은 필자의 직접조사에 의한 것이다.

14) 孫正彪,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改善點,” 國會圖書館報, 1969, 6, p. 12.

15) William A. Katz, *Op. cit.*, p.35.

16) Louis Shores, *Basic Reference Sources; An Introduction to Materials and Method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54) pp. 2-21.

능을 재검토해 보려는 소이는, 여기에 한국의 대학도서관 참고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되어 있는가를 평가해 보려는 데 있다.

1) 시설의 적절한 조직, 자료의 선택, 우수한 사서의 배치, 이용자의 파악, 도서관내 타 부서와의 긴밀한 연락 등의 관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는가?

2) 질문자의 불응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료의 정비, 참고사서의 교육, 자료조사기술 등이 숙련되어 있어 정보적 기능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가?

3) 독자를 돕는 활동(readers' advisory service)을 위하여 서지적, 직접적인 상담을 해주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참고사서의 고도한 전문적 지식과 광범한 서지정보에 의하여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자료를 직결시켜주고 매개해 주므로 하여 독서치료 혹은 독서요법(bibliotherapy)의 경지까지 이르고 있는가?

4) 유형, 무형의 교수가 되는 교육적 기능(instruction function)을 다하기 위해 정규, 비정규적으로 강의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도서관 이용지도에서부터 독서지도, 문헌조사법 등의 교수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5) 정보 미디어(information media)라 할 수 있는 각종 서지(bibliography), 색인, 초록 등의 2차자료를 정선하여 갖추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의 특수한 분야에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작성작업을 하고 있는가?

6) 참고자료를 식별하여 분석 평가하고 추천하는 평가적 기능은 어떠한가?

이상의 준거(criteria)에 의한 대학도서관 참고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질문의 처리가 지향적(directional) 형태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한국 대학도서관 참고활동의 현상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바, 이의 극복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용자 자신의 원하는 바를 명백히 알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의 질문형태로서 단지 참고사서는 해답을 위한 방향을 지시해 줄 것을 원하는 지향적 형태의 참고활동은 한 단계 진전된 ready reference 혹은 quick-fact형의 참고활동 즉 이용자가 한 두개의 자료를 검색함으로써 용이하게, 또한 간단한 해답을 얻을 수 있거나 참고사서가 직접 대답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변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수준을 대학도서관의 참고활동의 한계로 삼을 것인가는 문제가 있다. 엄밀히 따져 ready reference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어떤 사실이나

인용구를 찾는 것에 독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참고 사서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참고활동의 기본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search)의 방법과 형태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용자의 문제해답을 위해 한 두개 정도의 간단한 고정사실 이상의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논문작성을 위해, 강연준비로, 혹은 프로그램작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주제에 관해 비교적 한정된 정보를 구하는 타임으로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적어도 몇개의 자료원(source)을 요하고, 이 자료원중에는 상당수가 참고자료의 영역외에 속하는 것이다. 즉 그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 자료를 이해하고, 조직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을 요하고, 적어도 한 분야의 전문가이길 이 타임의 참고활동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사서로서 상당한 판단력, 사물, 인물, 사건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요하는 본격적인 참고활동인 것이다.¹⁷⁾ 특정한 조사의 경지야 말로 대학도서관 참고활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포괄적 대학도서관 참고활동의 구체적 업무를 기능별로 세분하여 명시한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ference Service Division의 개요를¹⁸⁾ 제시하려 한다. 이는 참고활동을 전개하는데 새로운 기능을 어떤 부분에서 발전시키고, 어느 부분에서 전문화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부분을 가법게 처리하여도 좋을까하는 자료를 삼고자 한다.

1.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

- 1) 사실에 관한 질문—도서관내
- 2) 사실에 관한 질문—전화
- 3) 사실에 관한 질문—문서
- 4) 탐 색
- 5) 독서지도

2. 조사활동(research service)

- 1) 정보검색
- 2) 초록작성
- 3) 번역
- 4) 문헌탐색
- 5) 문헌의 요약
- 6) 자료의 해설·해제

3. 이용지도

- 1) 비공식—목록의 이용지도
- 2) 비공식—도서관자료의 이용지도

17) William A. Katz, *Op. cit.*, pp.40-41.

18)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Board on Personnel Administration. *Descriptive list of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Preliminary Draft (Chicago, 1948) p.75.

Library Association.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Duties in Libraries* (London, 1962) 77p.

- 3) 공 식—클래스 단위 지도
- 4) 공 식—그룹지도
- 5) 공 식—교과지도
- 6) 도서관 편람, 이용안내 작성

4. 활동의 계획

- 1) 집회
- 2) 토론회
- 3) 독서클럽
- 4) 필름 토론회
- 5) 레코드 클럽
- 6) 텔레비전과 라디오

5. 서지작성

- 1) 그룹에 대해서
- 2) 개인에 대해서
- 3) 배포를 위하여
- 4) 클래스 수업을 위해서
- 5) 조사연구를 위해서

6. 자료의 선택

- 1) 참고자료
- 2) 도서, 팸프렛, 문서
- 3) 회화
- 4) 필름, 필름스트립, 슬라이드
- 5) 마이크로 자료
- 6) 음반, 테잎
- 7) 기타 자료

7. 참고 열람실의 조직

- 1) 도서, 팸프렛, 문서의 주문
- 2) 제본준비
- 3) 도서, 필름의 폐기
- 4) 신문, 잡지의 클리핑
- 5) 향토자료의 색인작성
- 6) 마이크로 필름의 작성과 복사
- 7) 도서관 상호대차의 교섭
- 8) 축차간행물의 조직
- 9) 관리와 훈련
- 10) 시설의 정비
- 11) 각종안내 표시
- 12) 신문, 광고의 원고작성
- 13) 지역내의 각종자료의 이용
- 14) 통계, 기록, 보고서의 작성

Shores의 6가지 기능도 A.L.A.의 세분화된 모든 기능도, 전술한 연구조사(search) 활동의 양상을 방사선

형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련하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참고질문에 응답하고 만나는(encounter)일의¹⁹⁾ 전체 과정이 추리과정(reasoning process)이라는 것은 함축성있는 이론이다.²⁰⁾

궁극적인 참고활동의 단계가 완전한 자동화(automation of reference service)에 있다면 전술한 바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혹은 미디어 센터(media-center)인 대학도서관 참고활동의 새 기능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인적(personnel quality) 영역의 확장

대학도서관의 사서중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사서가 스탠을 이루고 있어야 될 곳이 있다면 참고열람실의 참고사서이다. 참고사서(reference librarian)는 과연 무엇때문에 학위를 소유한 긴 교육경력과 우수성을 요구하느냐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John Sherrod는 참고사서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는데 이는 참고사서의 활동영역을 다각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 1) documentalist—전문적인 지식을 기록, 조직, 배포하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사서
- 2) special librarian—도서관적 수법을 전문주제분야에 적용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
- 3) science librarian—자연과학을 학부에서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서. technical librarian 이라고도 함
- 4) technical literature analyst—기술문헌에 정통하고 문헌분석에 종사하는 사서. science information specialist 혹은 literature scientist라고도 함.
- 5) information scientist—정보의 축적, 검색에 관한 과학에 관계함. information specialist 혹은 information engineer라고도 호칭함.²¹⁾

물론 information service와 refernce간에 명확한 구별을 하기는 어려우나 그 기능면에서 양자를 대동소이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참고사서의 명칭의 전문화 및 세분화는 그만큼 높은 수준의 사서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generalist에서 specialist에의 전환을 대학도서관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극적 능동적인 활동으로 승화되어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사서나 information worker는 다른 많은 전문적인 기술(arts)을 요하는 것, 즉 법률이나 의학 처럼 학문의 근거에 의존하고 있는 바, 학문의 근거

19) Denis J. Grogan, *Case Studies in Reference Work* (London: Clive Bingley, 1967) p.28. reference interview라기 보다는 의사의 경우처럼 진단하는 일이 우선 취할 문제이므로 *reference encounter* 라고 기술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한다.

20) Margaret Hutchins,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Chicago: A.L.A., 1944) p.30.

21) John Sherrod, *Selection and Training of Information Center Personnel*(P.W. Howerton ed. Information Handling: First Principles. Washington: Spartan, 1963) p.193.

란 이들에게 있어 체계적 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에 관한 학문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교육의 기초에서라야 가능한 것이고, 모든 지적인 원리처럼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²²⁾

전문주제사서는 그가 다루는 지식과 정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그의 주제분야에 관한 학적배경 또는 지식이 문제가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전문주제사서의 학식이 그가 다루는 주제의 봉사 대상과 맞먹어야 하며, 대학의 대학원 또는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주제사서들의 학적배경은 교수들과 맞먹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여러 곳의 큰 대학도서관에는 행정전문사서와는 달리 주제전문사서로서의 학자사서가 여러 사람이 배치되어 있다. Indiana 대학의 예를 들면, 세계 각 지역문화권(Area studies)의 연구소의 자료수집 서비스를 책임진 슬라브자료 전문가, 중국 및 극동자료 전문가 등의 전문사서가 10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이들의 직위는 교수들과 같이 조교수에서부터 정교수에 이르기까지 같은 명칭과 대우를 받고 있다.²³⁾

그렇다면 참고사서는 폭넓은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기초와 전공분야를 갖고 도서관학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라야 할 것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대학도서관 실정에 심각한 논점을 제기할 것이다. 우선 참고사서의 자질문제는²⁴⁾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의 기본교육의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할 형편인 것이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대학을 졸업한 이가 도서관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즉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를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참고활동을 전개한다는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참고활동의 가장 초보적인 지향적 업무수행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서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여건하에서는 참고사서의 신분이 교수직과 대등한 것이어야 한다는 소망이 섞인 여론은 공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질(personnel quality)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일선 참고사서들의 자격조건에의 자발적 승격이 불가피하며, 그런 연후라야 상기 문제의 적극적인 제기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 여건 즉 도서관학 위에 전문 주제의 석사나 전문주제 위에 도서관학 석

사를 받는 일이 하나 하나 달성되어야 만이 인적영역의 기본적 확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의 경영자는 자격을 구비한 참고사서에게 교수직 대우를 하여 채용하고, 승진의 조건이 교수직과 동일하도록 하는 일과 참고사서가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양적증원을 단행하는 일대 혁신이 뒤 따르다면, 대학도서관의 기능은 본체도에 오를 것이며, 그때서야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에서의 도서관의 진면목이 두드러지고 연구하는 학풍과 연구실적이 쌓이게 될 것이다.²⁶⁾ 연구결과는 사회의 진보에 직결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지속적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한 주제 이상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분명한 librarianship을 갖고 있는 참고사서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대학도서관의 핵심이 될 것이며 무한한 참고활동의 영역을 확충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일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을 구태어 부연하여, 참고활동 부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있다면 학사 참고사서라도, 참고사서의 자질에 가장 적합하고 재학시의 성적이 극히 우수하며 경험과 끊임없는 자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자질과 지식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²⁷⁾ 그리고 적당할 시기에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다.

IV. 문헌(reference material) 영역의 확장

책자(books)와 비책자(nonbook materials)로 구성되는 참고자료의 영역은 우선 무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문제를 논하기로 한다. 참고자료의 형태와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²⁸⁾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열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기본적 참고자료로서의 일반도서가 포함된 도서관 내외의 전 자료가 참고자료로 간주되고 이를 자료원으로 하여 참고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존립하고 사서들이 선정하고 수집한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되어진 모든 문서는 잠재적인 독자를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참고활동

22) Denis J. Grogan, *Op. cit.*, p.7.

23) 김중환, "도서관계 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圖書館學, 第一輯(1970, 12) pp.140-141.

24) James I. Wyer, *Reference Work: A Textbook for Students of Library Work and Librarians* (Chicago: A.L.A., 1930) pp.233-239 참조

25) 安永柱,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問題點," 도서관, 1966. 9. p.6.

26) 한상완, "대학도서관의 本質," 弘大學報, 1972년 3월 15일자 및 4월 1일자, 각 2면.

27) 김세익,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하여," 도철월보, 1970년 7월 p.13

28) Louis Shores, *Op. cit.*, pp.23-236 참조; William A. Katz, *Op. cit.* Vol. II. pp. 77-110. 참조; Frances Neel Cheney, *Fundamental Reference Sources* (Chicago: A.L.A., 1971) pp.14 ff

29) 김세익, *Op. cit.*

혹은 정보활동(reference information service)이 비롯된다. 왜냐하면 지식이나 정보체(bod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가 없으면 참고활동을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³⁰⁾

이러한 이론의 제기는 참고활동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소급되는 것이긴 하나 심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참고사서의 활동이 연구조사(research)에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참고도서라 정의되는 자료만에서는 안내역할이나 초보적인 기초지식 이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조직의 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참고자료를 선정할 수 있는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참고사서가 망라적인 자료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예산의 한계는 어느 대학도서관이나 마찬가지로이겠으나, 제한된 예산이나마 필요불가결한 참고자료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참고사서의 중요성은 배가되는 것이다. 또 하나 참고자료 영역 확충과 연결된 문제는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문서(manuscript)등 비매물자료의 입수문제이다. 이러한 자료는 대개 1차자료(primary sources)로서 학문의 연구에 더욱 귀중한 자료가 되는³¹⁾ 예가 허다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고사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연락과 입수조치를 정기적으로 취하여 어떤방법으로든지 이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길 형편이기에 문제의 제기로 끝내려 한다.

다음의 문제는 참고자료의 조직의 합리화이다. 최신성있는 자료에서부터 문화사적인 견지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참고사서나 이용자가 함께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참고열람실에 참고자료의 카드를 배열하고 열람목록에 참고도서 카드를 배열해 놓는 기본적인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좀 더 진보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 첫 단계로 참고도서 카드를 분류순으로 배열한 서가목록의에 서명, 저자명카드를 혼합배열하여 비치한다. 그리고 필요한 카드시스템(card system)의 조직은 참고도서 해제카드의 준비이다. 참고사서는 수집되는 모든 참고자료를 해제하여 카드를 작성하고, 여기에 정보철(informa-

tion file)의 제자료를 카드에 기재하여 이를 주제명을 매긴 주제명목록을 작성한 후에 사전체목록으로 참고도서 해제카드와 함께 혼합배열하여 놓는 작업이 바람직한 것이다.³²⁾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도구(tool)로 이 사전체목록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서지(bibliography), 색인, 초록, 자체도서관의 관내색인(home index)등을 적절하고 숙달되게 응용한다면 문헌의 조직을 통한 참고활동이 훨씬 원활해질 것이다. 문헌영역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조치는 도서관의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의 숙제를 푸는 일이다. 참고자료의 한계를 한 대학도서관의 장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그 도서관 내외의 전자료를 말한다 는 명제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서관의 상호대차는 물론 복사, 우편, 전화, 더 나아가서는 텔레타이프(teletype)를 이용하고 서지검색 및 참고질문의 해결 과정에서까지도 컴퓨터를 응용하는 다원화 및 기계화의 차원에 도달되어 문헌의 참고를 위한 대학인에게 최대한의 직접, 간접적 참고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V. 시설 및 조직의 확장

참고활동을 위한 조직과 시설은 집중화(centralization)하거나 분산화(decentralization)하건간에 완전 개가식 체제로 할 것을 조건으로하고, 참고사서의 배치와 행정, 시설의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 문화된 참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상과 같은 도서관의 보존기능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조직체제에서 벗어나야 되겠기 때문이다. 참고열람실을 형식적으로 따로 독립해 놓고, 서고 중심의 도서관 건물과 사서의 배치를 한 일종의 집중화 경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기본문제인 centralization 대 decentralization의 장단점과 문제점의 분석에 관한 이론은 허다하나,³³⁾ 주제배경을 가진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가 넓고 깊은 참고활동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decentralize하는 경향을 띄게 될 것은 당연하고 또 바람직한 것일 것이다.³⁴⁾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에 점증하는 형편이다. 참고업무 뿐

30) Frances Neel Cheney, *Fundamental Reference Sources* (Chicago: A. L. A., 1971) p.1.

31) William A. Katz, *Op. cit.*, p. 97.

32)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차보고서, 1969. 3-1969. 12. p.1.

33)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3rd ed. (New York: Wilson: 1961) pp.52 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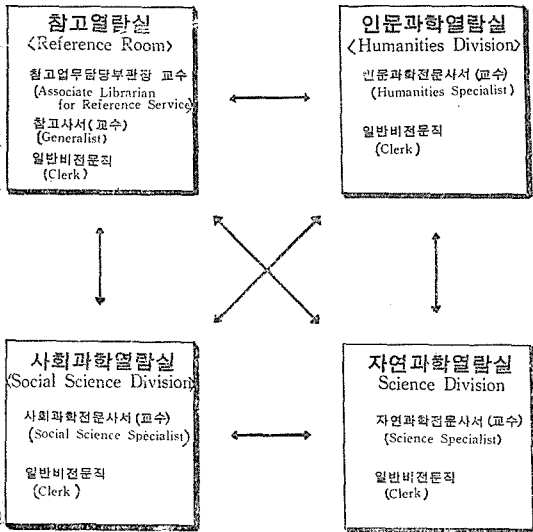
Everett T. Moore, "Reference Service in Academic and Research Libraries." *Library Trends*, January, 1964. pp. 362-372.

Samuel Rothstein, "Reference Service: The New Dimnsin in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anuary, 1961. pp. 11-18.

孫正彪 *Op. cit.*, p. 8 ff. 등.

34) Louis Round Wilson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The Organization, Administration, and Functions of Academic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 p. 210.

만 아니라 모든 열람업무가 주제별열람실(divisional library)로 분산되고, 여기에 주제전문사서가 참고업무에 임하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문과학열람실(humanities division), 사회과학열람실(social science division), 자연과학열람실(science division)로 나누어 모든 일반도서관 자료를 분산하는 형태의 도서관 경영이다.³⁵⁾ 그러나 중견개념의 참고열람실을 3가지 내지 그 이상의 주제로 나누어 따로 소장한다는 일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별 열람실 제도를 채택한 대학도서관이라 할지라도 기본적 참고자료는 어떤 열람실에도 속하지 않는 공용의 것으로 존속시키는 방법과 이에 따른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참고활동의 현장(field)이 되어 줄 것이다. 즉 기존의 정기간행물실이 병합된 참고열람실을 중심에 두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열람실을 배치하여 4개의 열람실이 도표와 같이 유기적으로 유통되고, 각 열람실의 참고사서가 유기적으로 이용자나 연구자를 다각적으로 동시에 혹은 시차를 두고 도와 줄 수 있는 체계가 수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열람실에 배치되는 참고사서는 물론 그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업무를 담당해야 됨은 물론 전문사서의 신분은 교수직이어야 할 것이며³⁶⁾ 전문사서의 수와 일반직원의 배치는 대학도서관의 규모 즉 대학의 규모에 따라 비율별로 적절히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³⁷⁾ 또한 규모가 큰 대학도서관에서는 열람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경영

할 부관장급의 참고사서를 임명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대학도서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이론과 문제점은 많을 것이며,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조직도 혁신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또 도서관의 시설은 도서관 참고활동이 궁극적으로 전문화하고 기계화할 견지에서, 전자계산기 편치카드 타자기 기타 컴퓨터의 도입과 설치는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 건축과 배치 등의 전문적인 사항이 건밀하게 참고기능에 밀착된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건물 내부의 개조의 편의를 위해서는 모듈러 플랜(modula plan)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상적인 대학도서관의 원천적인 기능을 다하고, 그 중에서도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을 중핵으로 삼아 운영하려면 이러한 윤곽이 잡혀져야 될 것임을 차원을 높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이론과 응용을 위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데 그치려한다. 그러나 명백히 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위에 논술한 완전개념의 주제별열람실 형태의 도서관으로 발전되어야 할 시기가 결코 피안의 불이 아니라 70년대 한국 대학도서관이 당면한 과제일 것이라는 점이다.

교수직을 가진 주제 전문 참고사서가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의 연구에 체계있고 다각적인 참고활동을 베풀어 주는 학문의 센터이자 미디어센터인 대학도서관으로³⁸⁾ 우리가 발전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이야말로 한국초창기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사명이며 이 나라 문화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결 론

혼돈(caos)은 질서의 모체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양하는(Aufheben) 어떠한 원리나 안목을 제시할 경우나 성립되는 명제이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영겁까지 카오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한국의 교육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만큼 발전되었고—비록 양적인 것이나—그 중에서도 대학교육은 괄목할 만 하다. 그리고 문교부의 대학설치 기준령에 의하여 대학은 모두 도서관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학생수나 학과수에 따라 도서관이 몇권이어야 한다는 원시적인 법령조항을³⁹⁾ 충족시키기

35) 대학의 특수성을 따라 자연과학 열람실은 이공학열람실과 의학열람실로 나눌 수도 있고, 인문과학열람실에서 예술열람실을 독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36) Associatio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uly, 1959. N. Staff 참조
 37) *Ibid.*
 38) 한상완, “대학도서관 이용론,” 연세춘추 1970년 9월 21일자(제581호) 6면
 39) 大學設置基準令 第十一條 3項

위해 대학당국은 관심을 기울였지 그 대학도서관의 본질과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정책수립자나 대학행정가가 도서관에 대한 하향식의 변혁이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근대적인 도서관학 교육을 받아 이 분야에 헌신하는 일선 사서나 도서관학계에서 대학도서관이 본질적 형상에 적합한 기관이 되도록 상향식의 의지와 이른의 총화로서 변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소론에서 강조하고자 한 의도는, 대학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이고 중추적인 업무인 참고활동(reference service)에 있어서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 재래 개념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참고활동을 재평가하고 참고사서가 교수급 수준의 교육과 경력이 필요하고, 교수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의 타당성, 참고자료인 논문헌과 조직, 시설의 확장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론의 시도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시야에서 조감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면면에서 반론을 제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1) 문헌의 확충을 위해 미출판자료의(unpublished materials) 수집에 대한 것

2) 대학도서관 제업무의 기계화 내지 자동화에 대한 이론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있어 centralization과 decentralization의 문제

4) 주제열람실에 관한 문제 등을 간파하고, 세부적인 이론의 제시 대신 연구과제로 남긴 점은 비단 필자만의 과제가 아니라 한국 대학도서관의 참고사서 및 학계의 공동의 과제가기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학 도서관 참고활동 즉 가르치고, 안내하고, 연구조사하는⁴⁰⁾ 업무를 도서관학 교육제도의 점차적인 개선과 보완으로 대학원 교육을 필한 전문사서가 담당하고, 참고자료의 제한을 가능한 한 극복하여 열람기능을 주제별 열람실로 혁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참고활동의 자료조직이 자동화(automation)된 단계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혼돈상태의 한국도서관계에 미래지향적 질서와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형태를 갖추고,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하겠다.⁴¹⁾

Selected Bibliography

김세익. "대학도서관의 참고봉사에 대하여," 도협월보, (1970, 7) pp.13-15.

金宗會. "專門圖書館에 있어서의 Reference Service," 도협월보, (1965, 7·8)

김중환. "도서관 관계 전문직과 관계학문의 재규정," 圖書館學, 第一輯 (1970, 12) pp.133~146.

北島武彦. 圖書館奉仕論·東京:理想社, 1971.

孫正彪.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改善點," 國會圖書館報, (1969, 6) pp.5~12.

安永柱.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있어서 參考奉仕의 問題點," 도서관, (1966, 9)

劉衡勝. "參考司書의 資質과 效率의 奉仕," 國會圖書館報, (1968, 8) pp.5~9.

李春熙. "現代圖書館과 參考業務," 도서관, (1966, 1) pp.28~31.

李漢龍. "韓國에 있어서의 參考奉仕에 대한 考察" 圖書館學會誌, 第三號, (1968, 11) pp.15~24.

長澤雅男. 參考調査法, 東京:理想社, 1970.

鄭駉談. "情報傳達手段의 發展과 韓國에서의 學術活動의 沮害要因," 도협월보, (1969, 12) pp.18~22.

Cheney, Frances Neel. *Fundamental Reference Sources*. Chicago: A.L.A., 1971.

Grogan, Denis J. *Case Studies in Reference Work*. London: Clive Bingley, 1967.

Hutchins, Margaret.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Chicago: A.L.A., 1944.

Katz, William A. *Introduction to Reference Work*, Vol. I, II. New York: McGraw-Hill, 1969.

King, Jack B. "What Future, Reference Librarian," Jack B. King, Herbert F. Johnson, and Ann S. Mavor. *R.Q.*, Vol. 10, No.3 (Spring, 1971) pp.243~247.

Lyle, Guy R.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3rd ed. New York: Wilson, 1961.

Rothstein, Samuel. "Reference Service: The New Dimension in Librarianship,"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January, 1961) pp.11~18.

Shores, Louis. *Basic Reference Sources: An Introduction to Materials and Methods*. Chicago: A.L.A., 1954.

Voigt, Melvin J.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I. New York: Academic Press, 1970.

Wilson, Louis Round and Maurice F. Tauber. *The University Libra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40) William A. Katz, *op. cit.*, pp. 146-157.

41) S.R. Ranganathan, *Depth Classification and Reference Service and Reference Material*. (Delhi: Indian Library Association, 1953) p.7.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